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남도 해남군
- 슈빌리지역아동센터



2016. 7

쥬빌리지역아동센터 이*혜

봉사활동의 소감으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써야 할 것 같다. 봉사 그 자체에 관련된 소감과 봉사과정에 있어서의 소감. 전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다. 반대로 후자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관계였고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센터의 아이들은 어렸다. 모두 초등학생들이었으며 우리 다섯명의 팀원들은 서로 조를 나누어 아이들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은 조였다. 그러면서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서로 어울리기 어려웠다.

아쉽지만, 5일동안 지낸 결과 역시 이들을 가깝게 해주지는 못했다. 여전히 친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있었는데 이전보다 초6 아이가 초1아이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는 것이었다. 사실 초6이었던 이 아이는 초1아이에 대해 매우 답답해했고 말도 걸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초6아이는 초1아이가 신발장 바닥에 내려가 혼자 놀고 있으니,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날, 그 초6아이의 의외의 모습에 이 아이들을 지켜본 보람을 느꼈다. 내 덕분에 된 것도 아닌, 그저 이 아이의 성격에서 발현된 이 행동이 어린 아이의 순수함과 정(情)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나에게까지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다. 봉사활동을 하러와서 이런 장면을 보니 나는 흐뭇해졌고 괜히 나까지 정화된 느낌도 들었다.

봉사과정에 있어서는 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 때문에 나는 봉사를 가기 전까지 우리의 팀워크와 친밀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다. 우리는 아침, 저녁 스스로 밥을 해 먹어야 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9시 이전까지 밥, 용모단장, 청소까지 마쳐야 했으며, 씻는 곳은 열악하였다. 우리 팀원들 사이에 자칫 트러블이 생긴다면 4박 5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게 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질질 끌고 가거나 끌려다니는 봉사활동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다.

하지만 막상 센터를 가고 생활해보니 나의 걱정은 쓸데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팀원 중 두 명은 교회 수련회 선생님의 경험이 있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관리는 물론 게임 프로그램도 잘 이끌어나가서 든든했다. 또한 팀원들은 리더였던 나보다 더 부지런하게 준비했기에, 봉사 1일차에 생리를 하게 된 불행한 나 자신은 덜 힘들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음식을 잘 했던 친구는 우리가 잘 먹는 것을 보고 좋아해주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청소나 설거지 등 우리는 서로 미루거나 계산하기보다는 서로 자기가 하겠다며 나섰다. 막상 글로 써보니 거짓말같이 이상적인 팀워크이고 친한 관계였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팀을 잘 만난 것 같았다. 어떤 팀원은 타임 테이블(커뮤니티)에서 봤다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화봉사단의 의미 있는 점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봉사활동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착한 일을 하니 상이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쥬빌리지역아동센터 김*진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차차 익숙해지면서 농담을 나눌 만큼 가까워짐을 느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집중을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 따라주었던 것 같다. 조를 나누어 선생님 한명이 소수의 아이들을 맡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가능했던 것 같다. 날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프로그램 시작시간보다 일찍 오는 친구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느꼈다.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뿌듯해할 때 기쁨을 느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티셔츠 만들기였다. 전사펜을 가지고 티셔츠에 그리는 것을 나 또한 처음 해보는 일인지라 신기했고 그리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그린 옷을 입고 온 친구들을 보았을 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학 때 봉사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 감사했다. 마지막 날 선생님 한명 한명에게 감사카드와 선물을 준비한 친구,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나누기 위해 가져온 친구들이 있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오히려 가르침을 받은 것 같다.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았던 시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쥬빌리지역아동센터 송*진

처음 이화봉사단 활동지역을 결심 하였을 때는 해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아이들에 대한 궁금함으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점점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바뀌었고, 다녀온 지 몇일이 된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는 후유증 아닌 후유증을 겪고 있다.

봉사단원 다섯 명이 가기 전부터 주기적으로 만나서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물을 사고 어떤 아이들일까 기대도 하고 아이들의 성향을 짐작하기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했던 아이들의 모습과 직접 가서 본 센터의 아이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많았었고,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 부분에서도 변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렇게 이끌어준 팀원들에게도 정말 고마웠다. 무엇보다도 이번봉사를 하면서 '감사'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부족한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서 불러주며 잘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감사했고, 모자란 부분을 옆에서 묵묵히 채워준 팀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했으며 팀원모두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에도 감사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지낸 5일은 나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해준 날들이었다.

각자의 조를 짜고 조원들과 조이름을 지었던 첫날에는 협조를 안 해주는 아이들도 몇 있었고, 부끄러워서 눈도 못 마주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하나의 프로그램에 협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였다. 협조를 해주지 않았던 아이에게는 참여할만한 흥미를 부여시키고, 말이 없던 아이에게는 사소한 질문들을 실재없이 던지며 말문이 트이게 하였다. 매사에 부정적이던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재능과 행동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해주며 자존감을 높여주었고 산만하던 아이에게는 집중할 만한 거리를 찾아서 주목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의사 소통법을 많이 배웠고, 차차 아이들의 마음도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나에게 와 닿았다.

그 순간의 뿌듯함과 기쁨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다른 어떠한 일을 할 때의 큰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의 사소한 행동 변화에 대한 기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거의 일주일동안을 아이들과 함께하다보니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울로 돌아올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특히 "선생님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라고 할 때에는 그냥 해남에 남아서 살고 싶을 정도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날에 한 아이가 집에서 종이에 '이화봉사단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 했어요'라는 말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주었는데, 나로 인하여 한아가 행복해졌다는 말을 들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짧았지만 아이들을 통하여 얻었던 행복이 내가 지금껏 살면서 얻었던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도 너희덕분에 정말 행복 했어' 이한마디에 모두 담을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든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이지만 나에게 있어 헤어짐은 항상 벽차고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의연해질 때 조금 더 성숙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함께했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잘 정리해서 좋은 추억으로 만들고 한번 더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왔다.

혼자였으면 벅찼을 일들을 함께해준 고마운 팀원들과의 소중한 인연, 아이들이 준 기쁨과 활력 그리고 그들로 인한 내 삶의 재충전의 시간은 2016년 8월 너무 더웠지만 행복과 좋은 기억들만으로 가득 찼던 풍성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쥬빌리지역아동센터 이*진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동생이 있는 나는, 대학 진학 후 초등학생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내가 학창시절 가까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값진 교육을 받았고 그 때 나는 나중에 이 감사한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화 봉사단의 일원이 되고자 용기를 내었다. 그리고 정말 내 일상생활에서 떨어져 지내보자는 마음에 우리나라 땅 끝인 해남, 쥬빌리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무더운 여름, 드디어 센터에 도착 하게 되었고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오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전에 짜 냈던 조를 만들고 각 맡은 조의 아이들과 인사를 했다. 나도 그들이 어색하고 그들도 내가 어색한 시간이었다. 웬지 살갑게 행동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우리에게 집중해 주는 모습에 긴장해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은 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 온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은 한 번에 말을 듣지 않았고, 특히 빠지는 아이가 있었으며, 우리 이화 봉사단의 프로그램 진행능력도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을 끝날 때 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가고 몸도 지쳐갔다. 게다가 나는 다른 봉사자들과 다르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귀중을 하곤 했다.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내 동생과 같지 않아 당황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로 떠나기 하루 전 날, 마지막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각자 맡은 조의 아이들에게 전해줄 상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 조 아이들이 어땠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장점이 떠오르면서 웬지 모를 아쉬움이 밀려왔다. 내가 한 마디라도 더 칭찬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며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핑계, 산만한 분위기를 없애겠다는 핑계로 정말 아이들과의 소통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 물건들을 정리하고 먼저 온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별의 시간이라서 그런지 이전과는 무언가 느낌이 달랐다. 그런데 그 때 한 여자아이가 우리에게 각각 작은 손 편지와 귀여운 인형을 주었다.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다음에 꼭 다시 오라는 말이 적혀있던 종이들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이 뭉클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 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만이 떠오르며 헤어짐을 더욱 아쉽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프로그램을 끝내고 작별인사를 고하며 센터를 떠나게 되었고, 이 무더운 여름 땅 끝 해남에서 만났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센터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지난 5일을 되돌아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봉사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마음과 더불어 그 일을 해 나가는 데는 체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아이들을 혼내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해하는 범위를 넓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힘들었지만 개성 넘치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배워간 것 같아 보람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겨울 방학 때 다시 한 번 더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쥬빌리지역아동센터 박*연

이화봉사단 모집 공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일말의 호기심과 함께, 고등학교 때는 기회가 희박했던 교육봉사에 대한 갈증으로 신청하였다. 처음 오리엔테이션 전까지만 해도 나는 봉사활동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성심성의껏 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방문이 여러 방면에 있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부터는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다. 그래서 봉사활동 가기 전까지, 가서도 계속 나도 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어서 고마웠다. 이런 교육봉사활동이 처음이니만큼 많이 걱정되었지만, 같은 팀 팀원 언니들이 많이 도와줘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하루를 다 구성하고 재료 구입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해야 했기에 처음에는 살짝 막막한 감도 있었지만 회의 때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일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물론 날씨의 영향으로 일정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었다. 벽화수정도 땀별에서 진행해서 매우 덥고 힘들었지만 사실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꽤 흥미로웠다. 흡사 나도 초등학생인 양, 아이들 속에 어울려 열심히 수정했다.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친누나, 언니처럼 재밌게 장난도 치고 편하게 느끼는 것이 좋았다.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았다.

5일간의 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자화상 그리기 프로그램 진행 전에 자신의 꿈을 적는 시간이 있었다. 자신의 꿈과 그 이유를 적는데,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양한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있던 조의 한 아이는 꿈을 공무원이라고 적고 이유는 적지 않았기에, 왜 공무원이 되고 싶냐 물었더니 해맑게 “안정적이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재차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심지어 덧붙여서,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던데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라고 물었다. 대답은 “생각 안 해봤어요.”였다. 아직 초등학생이고 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때인데 단지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건 생각해보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꿈을 단정 짓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물론 말하기 쑥스러워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그 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에게 이 짧은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정말로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재미있어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끔 질문을 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이 친구가 꼭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기를, 나의 이 질문이 나중에 이 친구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아쉬움도 많이 남았고, 그만큼 추억도 많이 남았다. 아이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걸,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 말할 수 있게 해 줄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줄걸! 이런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지나갈 때쯤, 이 아이들과 재밌게 장난도 치고 서로 얼굴도 그려주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추억이 슬며시 떠올랐다. 정말 더웠고 모기의 습격을 당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 다 잊고 아이들에게만 몰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만약 나에게 또 “이화 봉사단”으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주저 없이 다시! 이 아이들을 찾아갈 것이다!